

49대 이호계 신임 농림장관 취임사(요약)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림공직자 여러분!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찬란한 번영과 희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둔 소중한 시기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우리나라 농정의 최고 책임을 맡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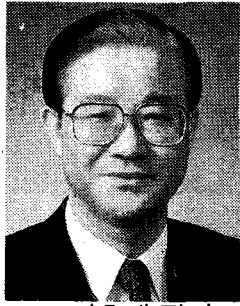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보면 더없는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역사와 국민앞에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WTO출범으로 농업에도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율관세도 점차 인하되는 등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농업과 농

촌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21세기 선진대국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진 농업과 농촌을 이룩하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우리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확실히 정립하고



◇이호계 장관

새머사어이 주어 트트하농어 거가하농촌 만들자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확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인이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정비, 기계화,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물적 인프라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별 농업경영체 단위에서의 경영혁신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기술과 경영능력

을 제고함으로써 경쟁시대에 맞는 기업가적 경영방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농림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

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식량안보,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의 유지·발전 등 농업의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농촌투자는 물론 확보된 투자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관련 조직과 공직자부터 1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국내의 정보·동향,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경쟁상대국보다 우수한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림공직자 여러분! 생명산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1세기 선진대국 건설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농업,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갑시다.

아울러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농림부를 보람과 긍지가 넘치는 1등부서로 가꾸어 나갑시다.

취임 인사

한국양봉산물연구소장 손재형

지난 7월23일 이사회에서 18여년간 오늘의 양봉산물연구소로 발전시켜온 김재길 전 소장님 후임에 저를 그 직책에 취임토록 인준해 주셔서 앞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된 손재형입니다.

근래에 없던 아카시아꿀 흉작과 경기의 침체, 또한 벌꿀의 시장개방 등으로 국내 벌꿀시장이 좀처럼 불황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회원님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석기기 전문회사인 영인과학주식회사의 연구소에서 약 5년간 식품·의약품 및 기타 유기합성 분석업무에 종사하던 중 1988년 3월 당시 김재길 연구소장님의 권유로 본협회로 옮겨와 근무를 한지 어느덧 10년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결코 짧다고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꿀벌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함께 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임 소장님에 비해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 회원님들께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지켜봐 주신다면 여러분이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우리 연구소가 명실상부한 국내외적으로 명망있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저희 연구소의 전 직원은 여러 회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여름휴가도 뒤로 미뤄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김재길 소장님의 사임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며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염려와 걱정은 뒤로 미루시고 열심히 일하는 저와 전 직원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물 수입 2천7백만달러 「천연꿀」 수입된것 없어

지난달 1일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37개 품목의 농축산물 가운데 7월중 오렌지등 17개 품목 2천7백만달러어치가 수입됐으며, 천연꿀등 20개품목은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품목의 경우 국내재고와 소비자 선호도 등을 감안할때 하반기중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7월중, 오렌지는 가공용인 발렌시아가 7백47만6천달러 어치인 9천7백19톤, 오렌지주스는 5백68만5천달러 어치인 5천11톤이 각각 수입됐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가 1천19만달러 어치인 2천8백15톤, 닭고기가 1백52만3천달러 어치인 8백49톤, 쇠고기설육이 1백63만천달러 어치인 4백36.4톤이 수입됐다.

농림부는 오렌지의 경우 미국내 재고감소 따른 가격상승등의 영향으로 8월중 수입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업

체의 경우 네이블오렌지의 판로 유지를 위해 네이블오렌지 수입 시기인 연말전까지 월간 1천~2천톤의 발렌시아오렌지가 수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돼지고기의 경우 수급조절용 비축물량이 1만3천여톤에 달하는데다 MMA물량으로 민간이 수입한 물량 2천7백여톤도 재고상태에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수입량 증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계약물량 수입시 하반기중 1만톤 안팎의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닭고기는 수입업체의 마진이 5% 정도로 당분간 소량씩 수입이 지속되고, 쇠꼬리는 주로 수입되는 미국산의 확보가 용이치 않고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도 낮아 당분간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농가의 벌꿀상품 「벌나라」상표등록 인천지회(지회장 조병만) 회원들이 주축을 이룬 「인천광역시양봉작목반」에서는 인천 양봉농가

들의 벌꿀상품을 「벌나라」란 이름으로 공동출하 사업을 해 왔다. 이 사업이 인천광역시농촌지도소의 집중적인 지도와 지원하에 운영되는 생산자단체 사업이어서 인천농가의 벌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고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 '97 제20924호(1997. 5. 22)로 등록했다고 한다.

인사발령

지난 7월23일 본협회 양봉산물연구소 손재형 차장이 소장으로 승진·취임함에 따라 8월1일부로 본 연구소내 후속인사가 뒤따랐다.

'88년 3월 입사, 10년여 근무경력을 쌓고 있는 김미경 대리가 과장으로, '92. 12. 입사, 근무경력 6년째인 이경희 연구원을 주임으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김미경 과장은 88년 서울보건전문대 졸업직후 본 연구소에서 10년 가까운 근무경력으로 본협회 역대 직원인사 중에 여성 과장이 탄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벌꿀수매

그동안 (구)유달양봉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양봉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고향전통식품은 13년간 양봉산물 취급 경험을 바탕으로 양봉가 여러분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벌꿀을 현금수매할 계획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 바랍니다.

벌꿀 현금수매 ☎ (0342) 716-5000~1

(구)유달양봉

내고향전통식품

대표 황성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98 - 6
약도 : 판교IC에서 수원간 국도 4.5km 지점

거창소초

- 일반소초 - 지금까지 표준 규격품
 - 우등소초 - ●매선해서 판매하는 분에게 적합한 소초
 - 소광에 딱차게 제작(가로 42cm×세로 20cm)
 - 국내 최고의 심방(최고의 우수품질)
 - 소방이 많으므로 10매로 11매 이상의 소방확보
 - 채밀시(탈봉시) 단번에 벌이 떨어지므로 조속 채밀
 - 소광에 딱차므로 견고함
 - 간편소초 - ●소초에 필름이 내장되어 있음.(견고)
 - 조립해서 바로 사용 (4면이 양철로 찍혀있음)
 - 일반소초는 즉시 조소가 안되면 나쁜 소비장이 되나 간편소초는 여러날만에 조소가 되더라도 좋은 소비가 됨.
 - 소비장이 완성되었을시 매선소초보다 많은 이점이 있음.
- ※소초, 소광, 소상, 개포, 절제품, 약품 등 일체 취급
- 거창양봉원 T. (0598) 42-1011**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0-1